

인터넷을 활용한 초등학생 영어 쓰기능력 향상 방안*

이중은**

안양남초등학교

박윤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Lee, Jongeun & Park, Yunjoo. (2013). Effects of authentic English writing on elementary school classroom website. *Modern English Education*, 14(1), 199-22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uthentic online English writing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riting fluency. Since students have little chance to use English as a means of communication, a writing opportunity on their classroom website can be an alternative mode for experiencing meaningful language us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the writing data revealed that the students used various strategies to express what they wanted to write. Quantitative analysis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wrote longer sentences with a variety of words. Qualitative analysis illustrated that they felt their online English writing to be admirable and enjoyable. This study provides useful insight into how an out-of-classroom online activity may be a part of the language learning experience of students.

[Online English writing/writing fluency/인터넷 영어쓰기/쓰기 유창성]

I. 서론

영어교육의 학년범위가 중등에서 초등으로 확대되고, 조기 영어 교육의 열풍은 지속되고 영어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영어의 습득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한국은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사회, 언어적 환경이 제한적인 EFL 국가지만 한국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영어를 의사소통 능력의 일환으로 가르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교과 수업 시간이 한 시간당 40분, 주당 3시간으로 총 120분에 불과하며, 이는 하루 24시간, 1주일을

* 본 연구는 이중은(2012)의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추가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음.

** 제1저자: 이중은, 교신저자: 박윤주

기준으로 하면, 학생들은 일주일의 전체 시간 중 0.4%를 영어에 할애한다. 영어 습득을 전제로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ESL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외국어로서 학습하는 한국은 영어교육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영어에 노출되는 절대적인 시간을 보장하고 증가시키는 것이 한국의 영어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이병민(2008a, 2008b)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에 대한 절대적인 노출 시간이 영어 학습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한국의 학습자들은 주로 학교에서만 영어를 듣고 말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ESL 국가의 학습자들에 비해 영어사용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초등학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초등학교 영어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와 언어의 편차가 큰 교사가 공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교육 이외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채로운 영어 학습과 각기 다른 영어 학습 할애 시간까지 각양각색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경석, 이경미, 2009; 이선, 2008).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실정 및 지역의 실정에 맞게 영어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한다고 하지만,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와는 별도로, 자녀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적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 사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민, 2005). 영어 사교육이 과열되는 현실 속에서 한국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학부모와 사회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점차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교실에서 영어교육은 어떤 모습을 지녀야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공교육 현장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적 상황, 가정의 교육적 열의 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학습자 개인의 영어 사교육 경험 정도에 따라 학습자들의 영어 발화 및 독해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초등교사로서의 경험을 지닌 공동 연구자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전직 초등학교에서 영어 사교육을 경험한 학생이 10%였던 것에 반해, 현재 재직중인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을 맡은 25명중 23명, 90% 이상이 영어 사교육에 노출이 되어 있다. 물론 영어과 사교육을 받는 것이 영어 수업 및 영어 습득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빚어지는 차이가 교실 상황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EFL 상황에서 영어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그들의 삶의 일부인지를 살펴본다면, 한국의 경우 영어는 말 그대로 '교육 내용'으로서 영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학습자가 영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ESL 상황의 학습자와는 다르다. 한국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실제적인 사용 상황이 부족하고, 진정성(authenticity) 측면 역시 다소 결여된 상황 속에서 학습과목으로서 영어를 습득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의 습득을 단순히 학과목이나 향후 명문대 진학, 직업 선택의 기회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어가 생활 속에서 살아 있는 언어로

존재하는 영어 학습 환경을 살펴 보고자 한다. 영어 능력의 향상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실제 학습 현장과 연계하고자 한 본 연구는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영어의 의사소통 능력 가운데 쓰기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실험과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를 통해 영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영어 노출 시간을 늘리며, 생활 속에서 영어능력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초등학교에서 쓰기 교육의 장으로 온라인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양적이고 질적인 영어 글쓰기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영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결과에 따라 변화하는 쓰기 유창성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의사소통 중심교수법

제7차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영어과 교육과정은 의사소통중심교수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어 교육의 목표인 ‘의사소통’을 위해 현실과 다른 교실환경에서도 학습자들이 의미있는 경험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즉, 영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를 영어로 제공되는 정보를 습득하고, 세계인과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 하는 것으로 본다.

언어는 형태에 따라 문자언어와 음성언어로 나뉘며, 이를 표현기능과 이해기능의 측면에서 구분하면, 쓰기는 표현기능의 문자언어, 읽기는 이해기능의 문자언어라고 할 수 있다. 듣기와 말하기는 각각 이해기능과 표현기능의 음성언어로 분류된다. 쓰기가 갖고 있는 표현기능의 특징은 의사소통 과정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데, 관용적인 표현이나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규칙, 즉 문법이나 어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요구한다. 완전하며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말하기와 듣기 이외에 쓰기, 읽기 즉, 언어의 4가지 기능이 모두 필요한데, 예를 들어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미국에 살고 있는 전문가와 연락을 취한다고 할 때, 인터넷 화상 전화 서비스를 통한 의사소통도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공간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e-메일을 통해 의사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e-메일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영어 쓰기 및 읽기 기능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에 초등영어 쓰기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경석, 이경미, 2009; 김영민, 배영직, 2007; 김정렬, 2001; 김재혁, 1998; 정동빈, 강시경, 2008).

김정렬(2001)은 규칙 및 사회적인 언어적 규범을 수용하면서 쓰기를 통해 사회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쓰기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실제 언어 사용과 유사한 상황을 교실 안팎에 만듦으로써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나 학습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설명과 시범, 그리고 문법 등이 중심이 되던 영어 교실은 차츰 학습자간의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모둠활동 및 협동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지면,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한 언어습득을 수업의 목표로 하게 된다(박의재, 정양수, 2003; 박현진, 고경석, 2008; 선규수, 김윤주, 2009).

쓰기는 실제적 의사소통을 위한 글쓰기와 교육 및 학업을 위한 목적을 위한 글쓰기 등 크게 2가지로 구분한다(Brown, 2007). 전자의 경우에는 실생활 속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서 경제적인 가치, 문화적 가치, 도덕적 가치 등을 담고 있으며, 후자는 교실에서 교육 및 학업을 위해 언어를 수단화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실에서는 후자를 만족시키는 수업 즉, 언어를 수단으로 하고, 쓰기 활동을 통해서 지식 및 사고력을 증진시키며, 때로는 쓰기 자체를 학습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교실 안에서의 쓰기교육과 실제 생활과 비교를 통해, 실제적 글쓰기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었고, 저널 쓰기, 이메일, 키팔 활용(keypal) 영어쓰기 등이 등장하였다(고경석, 이경미, 2009; 김영태, 정금숙, 2003; 김혜리, 김소중, 2010; 박현진, 고경석, 2008; 이선, 2008). 자신의 생각이나 특정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적는 저널 쓰거나, 다른 도시의 학습자나 친구에게 이메일을 쓰는 것, 키팔 친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주고 받는 활동 등은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쓰기 교육과는 달리 생동감, 유용성, 흥미 등을 유발시켰다(선규수, 김윤주, 2009; 전은경, 2009).

2. 초등영어 쓰기 지도 접근법

한국 초등학교 학습자들은 향후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주역으로 영어 습득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는 높으나 이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은 낮으며, EFL 환경에 따라 영어를 과제 및 교과목으로 학습함으로써 이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동시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교육이 시기상으로 너무 늦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면, 영어로 진행되는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수업을 도입하여, 영어 수업에서만큼은 충분히 듣고 공부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김재혁, 1998; 정동빈, 강시경, 2008).

초등학교 영어 쓰기 지도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에는 크게 결과물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으며, 결과 중심 접근법으로는 문법 요소를 강조하는 통제 자유 작문 접근법, 내용을 중시하는 자유 작문 접근법,

구성에 관심을 두는 단락 문형 중심 접근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고려하는 문법·구문·구성 중심 접근법이 있다. 과정 중심 접근법에는 학습자들의 경험에 기반을 둔 언어 경험 중심 접근법과 유창성에 초점을 두는 의사소통 접근법이 있으며,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 쓰기 지도를 위해서는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는데, 이는 쓰기 활동의 초기 단계에서 오는 오류에 대한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김영태, 정금숙, 2003; 김재혁, 1998; 박현진, 고경석, 2008; 최연희, 전은실, 2009). 자유 작문 접근법과 언어 경험 중심 접근법, 특히 유창성의 측면에서 의사소통 접근법을 활용해서 쓰기를 지도하는 경우 문법이나 관용어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는 어려워지지만, 실제적인 영어 쓰기 활용을 통한 언어 습득이 가능해지며, 학습자의 자신감을 배양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3. 과정 중심 글쓰기

쓰기는 문자언어라고 할 수 있는 데, 특히 표현을 위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표현’이란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자를 가정하며, ‘문자’라는 매개체를 통해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 느낀 점, 스토리, 사건 등 다양한 장르 형태의 글을 쓰게 된다. 쓰기는 필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전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어느 경우에서든 쓰기 활동의 완성도는 독자가 글을 이해한 정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글쓰기는 필자의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과정으로 본다(이선, 2008; 최연희, 전은실, 2009).

현재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글쓰기의 결과물만을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글을 쓰는 과정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각 과목별로 ‘과정 중심 글쓰기’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최연희와 전은실(2009)은 글쓰기 과정을 쓰기 글감이나 주제에 대해 고민하는 ‘쓰기 선행단계’, 선행단계에서의 열개를 구체화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실제 글로 쓰는 ‘핵심 단계’, 그리고 작성한 글에 대한 자기 평가와 타인으로부터의 피드백 등 수정 및 편집을 하는 ‘쓰기 후행단계’ 등 3단계로 설명하였다. 쓰기를 통해서 학습자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쓰기 활동의 결과물은 비록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매개체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학습자는 쓰기를 통한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김영철, 2002; 박현진, 고경석, 2008; 이선, 2008; 최연희, 전은실, 2009).

4. 구성주의와 웹 기반 영어 쓰기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절대적 지식보다는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의 지식, 정보 습득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학습자가 학습을 하고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지식이나 내용들이 더 이상 교사들만의 권력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실은 구성주의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변모하는데, 첫째, 학습의 주체는 교사가 아닌 학습자가 되며, 영어 습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나 학습 내용의 제시에 있어,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영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해진다(박윤주, 찰스윤, 2009). 둘째, 정보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으므로, 학습자가 대량의 정보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자신의 생각으로 표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예를 들어, 영어 시간에 자신이 경험한 상황이나 정보에 대해서 영어로 표현해 봄으로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다(박현진, 고경석, 2008; 정미라, 2010).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시간에 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인이 독단적으로 정보를 조직하거나 의미를 발견하는 것 보다는 모둠활동, 즉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협동함으로써 유의미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면, 인터넷은 실제 생활 및 사회의 모습이 녹아있는 살아있는 매체이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에 접목시킬 수 있다. 쓰기 활동의 측면에서 특히, 한국처럼 EFL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학습자에게 지속적이며 실제적인 영어 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웹 기반 영어 쓰기 활동은 의미를 가진다(김정렬, 2001; 박현진, 고경석, 2008; 선규수, 김윤주, 2009; 전은경, 2009). 정동빈과 강시경(2008)은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 교수-학습이 영어학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는데, 웹 기반 글쓰기 과정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진행이 되는 학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논의하였다. 그리고 웹 기반 영어 쓰기 활동을 통해 웹 상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것에 대해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기회를 통해 읽기와 쓰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웹 상에서 만날 수 있는 대상과 실제적인 상호 작용을 할 수도 있다(김영민, 배영직, 2007; 김지영, 2004).

III. 연구 방법

1. 연구 과제

연구자들은 미리 개별 학생의 가정 및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속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4개월 간의 실험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가 이루어진 초등학교에서 쓰기 교육의 장으로 온라인 웹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학생들의 양적이고 질적인 영어 글쓰기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와 같은 영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결과는 특히 쓰기 유창성에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는 자유로운 학급 웹페이지 글쓰기를 통해 정확정보다는 유창성에 초점을 두었고, 학습자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하여 영어 쓰기가 발달되는 정도를 확인하였다. 실제적인 영어 쓰기 활동의 목적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 및 부정적 견해 해소를 통해, 학습자간 상호 작용 및 개별 활동을 하고 학습자 스스로 영어 쓰기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삼았다.

한국의 초등학교 6학년 1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제적 영어 쓰기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연구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실제적인 영어 쓰기 환경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영어 쓰기 유창성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고 양적으로 나타난 영어 쓰기의 효과를 알아보며, 둘째, 학생이 작성한 글 자체에 대한 쓰기 평가와 함께, 학생들과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생활 속에서 스스로 영어를 읽고, 쓰는 사용 기회를 늘린 온라인 영어 쓰기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 참여자 및 연구도구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 A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 25명의 학생들이며, A 초등학교는 안양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대체로 경제 수준이 높고, 학부모의 교육적 관심도 높으며,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 정도도 높아, 실험 당시 참여자의 96%인 23명이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참여대상자인 25명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학습자들이 학습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과는 무관한 실제적인 영어 쓰기 상황을 설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4개월 동안 관찰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영어 쓰기 유창성의 발전 정도를 평가 기준에 맞추어 측정함으로써, 발전 과정 및 쓰기 유창성 향상 정도를 확인하였다. 양적 연구 측면에서는 학습자의 글 조회 수, 학습자의 쓰기 활동 참여 빈도수 등을 살펴보고, 다른 학습자의 글 읽기를 통하여 읽기 경험 및 쓰기 빈도수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 측면에서는 담임교사인 공동연구자가 실제적 영어 쓰기 활동 및 실험을 진행함에 있어 최대한 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자연스럽게 학교생활 중에서 개별학생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실제적 영어 쓰기에 대한 연구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2) 연구 도구

연구자들은 실제적인 영어 쓰기 활동을 위한 상호작용의 매체로 25명의 학습자들이 다수로 회원가입을 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 Daum Communication의 카페 서비스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실생활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학급 웹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영어 쓰기 교육도도모하였다. 학습자들이 매일 방문하여 개별 학습자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으로서 카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형식의 글을 작성할 수 있는 9가지 쓰기 메뉴를 좌측에 마련하였다. 또한 실험 전 사전 조사를 통해 학습자들 100% 모두가 방과후 인터넷에 접속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카페 시작화면의 중앙에는 학습자들의 수업 시간 중 활동사진 및 학습자의 사진들을 위치하도록 하여, 이 카페가 모든 학습자를 위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둠원들의 일상을 기록할 수 있는 ‘그룹간 일지(Group diary)’, 매주 중요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주별 화제(Talking about the issue of this week)’, 창의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나의 스토리(Sharing my story with my friends)’, ‘학급 소식방(Gossip girls & boys)’, 자신이 추천하는 이야기와 영화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나의 추천목록(My recommendation)’, ‘나의 사진(Showing ur pictures)’, ‘질문방(I have a question!)’, 재미있는 단어 게임을 위한 공간인 ‘단어방(A Word Game)’, 개별 학습자를 위한 공간인 ‘개인방(Individual room)’으로 메뉴를 구성하여 학습자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카페에 글을 작성하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간 서로의 글을 모두 읽을 수 있도록 학급 카페를 운영하였으며, 읽고 난 뒤에 서로 답글을 달아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글을 작성하고 다른 학습자들의 글을 조회할 때 마다 카페에는 통계 기록이 남는데, 이를 활용하여 카페 멤버의 등급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Caterpillar’, ‘Chrysalis’, ‘Imago’, ‘Butterfly’ 등 4단계로 설정하였다. 무엇보다, 학습자가 현재 영어를 학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자인 담임교사는 최소한으로 관여하였다.

3. 자료 분석

학급 내 개별 학습자의 쓰기 유창성의 발달 정도에 대해 양적 연구와 개별학습자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1) 양적 연구 방법

(1) 쓰기 유창성(Writing Fluency)

영어를 잘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어로 막힘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며 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로 표현하고 싶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나 사고 내용, 의미 등을 언어로 변환시켜서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생각을 언어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유창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쓰기 에서는 글의 양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자동적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유창성이 있다면, 글의 양 또한 많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박주희, 2010).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 쓰기 활동은 일정한 틀에 맞추어 성취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학습자들의 수준과 능력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의 틀을 마련하여, 개별 학습자 모두에게 유창성을 측정하기 보다는 ‘개별 학습자마다의 유창성 발달 정도’에만 초점을 두어 연구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유창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글의 길이 즉, 글의 양이 유창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로, ‘문장 안의 단어 수’와 ‘문장 수’를 세어봄으로써 유창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쓰기 유창성 측정 방법

측정 기간	2011년 3월 ~6월 말 (4개월간)
측정 일시	2주에 1회 측정
측정 방법	연구자들의 관찰
측정 도구	개별학습자의 이름이 기록된 체크리스트 활용
측정 기준	문장 내 단어의 수 및 문장의 수
결과 처리	단어 수의 증가와 감소 상태를 파악하여 유창성 발달 정도 파악

(2) TWE(Test of Written English) 쓰기 채점 기준표에 의한 평가

영어 쓰기 활동 후 평가를 실시할 때 이루어 질지는 다양한 기준은 글 자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총체적 채점 방법, 한 가지 관점에서 평가하는 주요 특성 채점 방법, 글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분석적 채점 방법 등이 있다(임병빈, 2005). 본 연구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쓰기 평가 기준으로 TWE를 선택하였으며, TWE의 채점 기준표를 활용해서 학습자의 실제적 영어 쓰기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글 구성 및 전체적 이미지를 평가해보았다. 글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체적 채점 방법으로, 쓰기 유창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실제 TWE는 성인대상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글의 내용을 보는 방법론으로 유용하였으며, 채점 기준인 0-6점은 분석 결과를 분석하는 예시에서 자세히 다룬다.

표 2

TWE를 통한 총체적 영어 쓰기 측정 방법

측정 기간	2011년 3월 ~6월 말 (4개월간)
측정 일시	2주에 1회 측정
측정 방법	TWE 채점 기준표에 따른 연구자들의 채점
측정 도구	개별학습자의 이름이 기록된 체크리스트 활용
측정 기준	TWE 채점 기준표의 항목
결과 처리	글의 구성 및 의미 등 전체적 쓰기 평가

2) 질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측면에서는 연구자들이 자연스럽게 학교생활 중에서 개별학생의 인터뷰 및 상담을 하였다. 모든 참여자들과 최소한 1회 이상의 구두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양적, 총체적 측면에서 특별히 영어 쓰기가 향상된 참여자의 경우는 추후 비디오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구두 인터뷰와 비디오 인터뷰의 내용 모두 이를 전사하여 참여자들의 변화에 대한 공통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개별적인 특징이 있는 학생들의 내용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제적 영어 쓰기에 대한 연구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IV. 분석 결과 및 논의

1. 영어과 인식 탐색을 위한 설문지

4개월에 걸친 실험연구에 가장 앞서, 참여자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목적을 알아보았다. EFL 상황에서 영어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영어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1)태도 및 정의적 영역의 5문항, (2)학습 목적의 5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참여학생 25인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표 3
초등학교 학습자의 영어과에 대한 인식 탐색을 위한 질문

초등학교 학습자의 영어과에 대한 생각	
태도 및 정의적 영역	A-1 영어를 하는 것이 즐거운가?
	A-2 영어를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나?
	A-3 영어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나?
	A-4 영어 시간이 지루한가?
	A-5 영어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할 때 긴장하나?
학습 목적	B-1 영어가 우리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나?
	B-2 영어는 나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B-3 영어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나?
	B-4 영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
	B-5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연구자들은 질문지 이외에도 학습자의 영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실험 전에 나타난 태도 및 정의적 영역에서의 부정적 태도는 놀라웠다. 25명의 참여자 가운데 2명의 학생만이 영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그 나머지는 영어에 대하여 아무 생각이 없거나(52%), 매우 싫어하고(40%) 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영어를 싫어하거나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영어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거나 긴장감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추후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들이 알아본 결과,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영어에 대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엄청난 양의 사교육 때문에 영어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급 웹페이지에 대한 참여도

1) 그룹간 일지(Group Diary)

학급에는 5명으로 이루어진 5개의 모둠이 있는데, 각 모둠에서 순서를 정하여 1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모둠 내에서 일어난 일이나, 작성 순번을 따라 학습자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적도록 하였다. 그룹간 일지 화면(그림 1 참조)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모둠의 이름을 따서 'Panda's Diary'라고 적기도 하고, 모둠 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경우에는 'My Diary'라고 제목을 정하여 글을 작성하였다. 5모둠이 하루에 적어도 1개의 글을 올려야 하므로,

독자로서 카페에 참여하는 다른 학습자들은 매일 5개 이상의 새로운 글을 읽어볼 수 있다. 조회 횟수는 다른 학습자가 얼마나 관심 있게 글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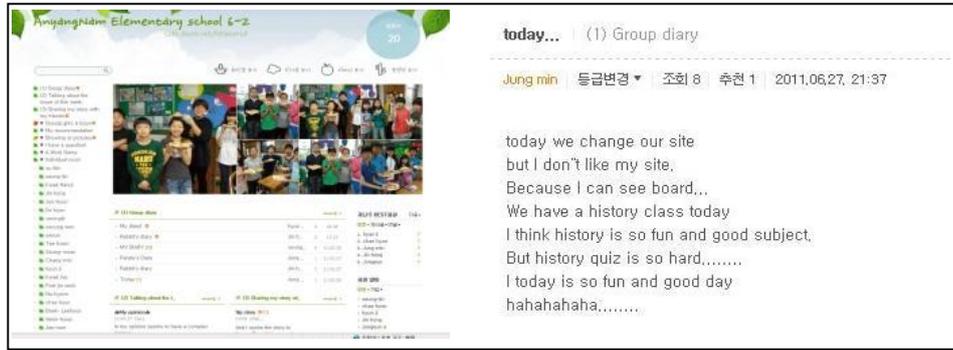


그림 1 Group Diary 예시

2) 주별 화제(Talking about the issue of this week)

교사나 혹은 학습자 중에서 한 명이 뉴스나 신문 기사 중에서 흥미롭거나,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기사를 스크랩하여 'Talking about the issue of this week' 메뉴에 링크를 해둔다(그림 2 참조). 다른 학습자들은 링크된 기사를 읽어 볼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간단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볼 수 있다. 이 활동의 경우에는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답글을 다는 기능을 통해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림 2 Talking About the Issue of This Week 예시

3) 나의 스토리(Sharing my story with my friends)

이 활동은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작성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창의적으로 여러 장르의 글들을 작성할 수 있었다. 누군가가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른 학습자가 그 글을 읽고 그 다음 내용을 창의적으로, 그리고 흥미롭게 꾸며서 영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야기를 작성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단어를 영어로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 사전이나 인터넷 상의 영어 사전을 활용하여 작성하기도 하였다(그림 3 참조).



그림 3 Sharing My Story with My Friends 예시

4) 학급 소식방(Gossip girls & boys)

아래 그림 4의 메뉴는 실제적인 영어 쓰기 활동과 관련이 가장 깊었는데, 속상했던 일, 기분 좋았던 일, 기뻐던 일, 교생 선생님이 오셨던 일, 수련회, 무서웠던 일, 지루한 하루 등 글로 남기고 싶은 사건이나 감정을 한 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다른 게시판과는 달리 다른 학습자가 작성한 글이 보이는 상태에서 나의 글을 바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비록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학습자간 대화를 나누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의 삶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가급적이면 이 메뉴에 글을 적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로 카페를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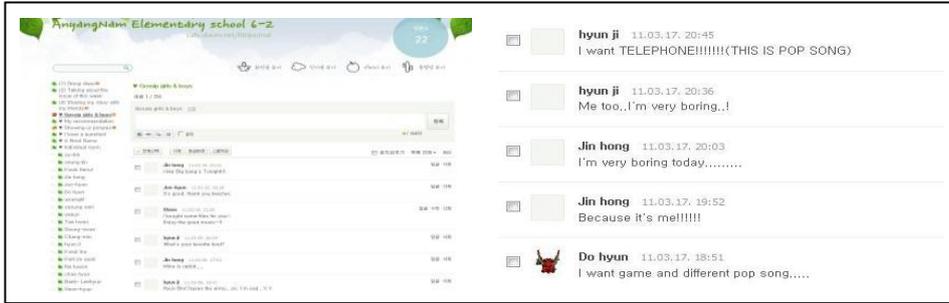


그림 4 Gossip Girls & Boys 예시

5) 나의 추천목록(My recommendation)

특정 작성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며, 학습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책, 영화 등에 대해서 영어로 소개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공간(그림 5 참조)으로 참여자의 추천도서나 영화 등에 대한 동료들의 답글 참여가 특히 활발하여, 쓰기과 읽기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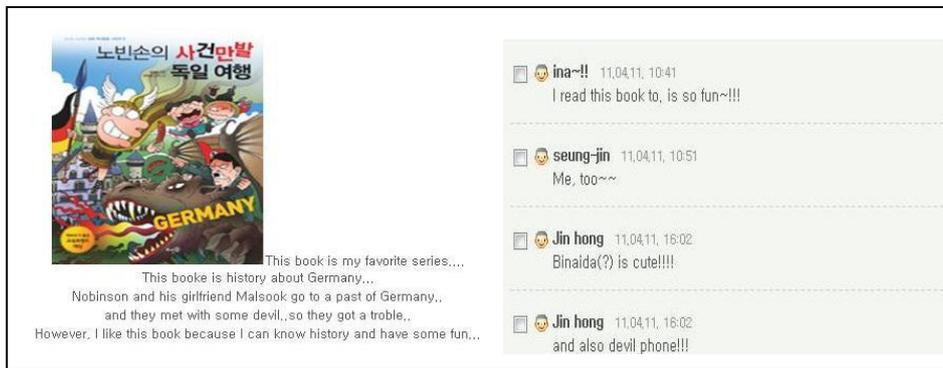


그림 5 My Recommendation 예시

6) 나의 사진(Showing ur(your) pictures)

나의 사진 메뉴는 학습자의 사진이나, 관심 있는 연예인, 가족사진 등 다양한 사진 자료를 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 출처가 다른 사이트인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을 사전에 교육하였다. 각자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사진을 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학습자간 상호작용하며, 답글을 다는 형태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그림 6 Showing Ur(your) Pictures 예시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나 가족 사진을 “Who is he/she?” 방식으로 올려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다.

7) 질문방(I have a question!)

학습자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올리는 공간으로 답변은 교사 이외에 다른 학습자가 하기도 하였다.

8) 단어방(A Word Game)

다양한 영어 활용 게임을 통해, 학습자들의 흥미와 재미를 더하였다(그림 7 참조).



그림 7 A Word Game 예시자료

9) 개인방(Individual room)

학습자 개별적으로 게시판을 구성하여 학교생활이나, 영어 혹은 다른 교과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질문들, 과제물을 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3. 쓰기 유창성 및 총체적 채점에 의한 평가 결과 및 분석

1) 쓰기 유창성 측정 결과

표 4
참여자들의 쓰기 유창성 측정 결과표

번호	이름	채점 날짜									
		3/7	3/21	4/4	4/18	5/2	5/16	5/30	6/13	6/27	
1	이 * 진	word	29	34	28	58	33	35	39	71	82
		sentence	4	3	3	4	4	5	5	9	10
2	김 * 은	word	51	25	40	80	74	61	53	103	64
		sentence	5	2	4	7	7	10	6	11	9
3	곽 * 아	word	19	33	27	25	22	38	53		
		sentence	2	4	5	5	4	7	7		
5	노 * 민	word	30	21	25	29	40	47	57	63	
		sentence	3	4	3	5	4	6	9	11	
6	신 * 빈	word	28	34	32	52	62	68	62		
		sentence	4	5	6	10	10	11	10		
7	김 * 현	word		20	51	54	21	49	38		
		sentence		2	6	6	6	5	6		
8	박 * 진	word		19	38	39					
		sentence		3	8	8					
9	오 * 지	word	15	23	27	34	56	58	48	63	69
		sentence	2	4	3	5	7	9	6	9	10

12	우 * 완	word	46	45	44	45					
		sentence	4	6	5	6					
13	박 * 훈	word	27		47						
		sentence	4		7						
14	김 * 현	word	62	32	61	65	48	48	76	57	
		sentence	11	3	6	6	6	4	10	6	
15	권 * 원	word	26	35	33	19	30	37			
		sentence	3	5	7	3	3	5			
16	곽 * 열	word	36	12							
		sentence	3	1							
18	이 * 협	word	41		45	35	57				
		sentence	4		5	5	8				
19	민 * 흥	word	71	47	31	32	54	37	64	68	70
		sentence	10	6	3	3	6	7	7	11	11
20	손 * 환	word	18	20		26	21	33			
		sentence	1	4		5	3	5			
21	김 * 기	word			23	27					
		sentence			6	7					
22	박 * 우	word	47	35	25	28	31				
		sentence	6	3	2	4	4				
24	성 * 현	word	18	26	24	26	29	40	76	73	
		sentence	3	4	3	6	5	6	11	12	
25	안 * 민	word	26	33	28	36	33	66	34		
		sentence	4	4	4	6	6	7	5		

연구자들은 2주에 1회씩 9회에 걸쳐 각 참여자들의 글을 단어 수와 문장 개수로 분석하였는데, 표 4에서 보듯이 1번 이*진, 2번 김*은, 9번 오*지, 19번 민*흥, 24번 성*현 등 다섯 참여자가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실험기간 전반에 걸쳐 모든 메뉴에 꾸준히 참여하였으며, 전반적인 단어

수와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으며, 다른 참여자들의 글에 답글을 다는 것을 즐기는 등, 본인들의 쓰기능력이 향상된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글을 꾸준히 읽음으로써, 부수적으로 읽기 능력도 향상된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나의 스토리’ 에서 나타난 9 오*지의 예를 들어보면 초기인 3월에는 한 문장에 5단어를 넘지 않는 수준을 글을 올렸다.

“It is small and pretty. So, it cracked!
I’m so surprise!!! In the egg... (3월 17일, 오*지)

이후 동일 참여자의 5월의 작문은 비록 동사 시제 등의 문법적인 면에서 오류를 보이기는 하지만 한 문장에 12단어 이상을 구사하거나, 14문장을 적고 내용도 길어지는 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And I spoke the story to them...
They listen my story and said “Don’t worry~!!
I relax...
When I go out from police station..... Oh no!! There is Sybil!!
I didn’t have some hope...
She said “Don’t tell my secret I said, but you tell it. So I’ll kill you~!!!!
And she pull out the knife!!
And she try to kill me! (5월 30일, 오*지)

2) TWE 쓰기 채점 기준표에 의한 채점 결과

아래의 표 5는 참여자들의 쓰기 변화를 총체적 채점 방식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예시글은 연구자들의 참여자들 글 가운데서 TWE 채점 기준에 따라 각각 0-6점으로 평가한 것을 적은 것이다.

표 5
TWE 채점 기준과 참여자들의 등급 예시

등급	TWE 채점 기준	채점 예시
6	때로는 오류는 있을 수 있으나, 수사적, 문법적 차원에서 탁월한 쓰기 능력을 나타냄 • 쓰기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 • 잘 구성되고 전개됨 • 매우 적절한 세부 내용 • 지속적으로 능숙한 언어 사용 • 문법적 다양성과 적절한 어휘선택	Are you happy? I think I’m happy. Because I have many great best friends. I’m very healthy even I’m small. I don’t have jobs. But I have perfect teacher! I like her very much. I have enough money. My mom gives me pocket money. I think our class is the best class. Because our class students are smart, funny and kind. I really satisfied my life.

5	<p>때로는 오류는 있을 수 있으나, 수사적, 문법적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쓰기 능력을 나타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의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효과적으로 다룸 • 대부분 잘 구성하고 전개됨 • 적절한 세부 내용을 씀 • 능숙한 언어 사용 • 문법적 다양성과 어휘의 폭을 다소 나타냄 	<p>Our story : Scary hotel Hi my name is Kevin. And I have two friends. Chloe and Brain. I'm smart boy and I like fantasy, adventure, scary things! And Brian likes fantasy and adventure and scary things, like me! Chloe is also smart girl and she likes fantasy, adventure, scary things! And we're 14 years old. And we always play together! And we always go to Michael's café. We have our password about Michael's café! That is a secret!</p>
4	<p>수사적, 문법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쓰기 능력을 나타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제를 적절히 다루지만 과제 일부만을 다루기도 함 • 양호하게 구성되고 전개됨 • 어느 정도의 세부내용을 씀 • 어느 정도의 능숙한 언어 사용 그러나 일관성은 부족 • 때때로 의미를 모호하게 만드는 오류 	<p>In my opinion that is sometimes that is good and sometimes that is bad. If we do game in night. Our eyes are going to bad. And if we do game in night everyday that is wrong. Sometime we do game in night it is OK. Because we can solve our stress game. But If we don't have many times we do game in night.</p>
3	<p>쓰기 능력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수사적, 문법적 차원에서 결함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구성이나 전개 • 부적절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세부 내용 • 눈에 띄는 부적절한 단어나 어형 선택 • 문장 구성이나 용례에서의 오류 축적 	<p>I think that news is important~!?! And we blame that man. But I think that problem isn't only that man. Many people use bad words and fight! Please reflect~! Didn't you have a bad words? Probably you had some bad words. But, that man's action is bad too. Curse is bad! The old man had been shocked. Anyway, my opinion is curse is bad. So the man's action is bad.</p>
2	<p>쓰기 능력이 없음을 암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미흡한 구성이나 전개 • 세부내용이나 관련 정보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음 • 문장 구성이나 용례에서의 크고 잦은 오류 • 글의 초점이 크게 어긋남 	<p>Between teams in music today. There we sing haneunge. It was great win. But even if we won too. It was difficult to talk to you later. If this time 'll Do more.</p>
1	<p>쓰기 능력이 없음을 나타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관적이지 않음 • 글의 전개가 없음 • 심각하고 지속적인 쓰기 오류 	<p>Today I went to the dentist. Take out a tooth. It's not sick. The next day putting on the prosthesis.</p>
0	<p>아무 반응이 없거나, 논제를 단순히 베껴 쓰거나, 논제를 벗어나 있거나, 목표 언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 있거나, 단지 자판을 두드린 몇 글자만으로 구성된 글</p>	<p>I'm today is very tired because Too many institutes is a game in. I hate Tuesday was so intense.</p>

아래의 표 6은 참여자들의 학급 웹사이트에 적은 글들을 연구자들이 TWE 채점 기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이다.

표 6
참여자들의 TWE 채점 결과표

번호	이름	채점 날짜								
		3/7	3/21	4/4	4/18	5/2	5/16	5/30	6/13	6/27
1	이*진	3	4	3	4	4	5	5	5	5
2	김*은	3	4	3	4	5	5	6	6	6
3	곽*아	3	3	4	4	5	5	5		
5	노*민	2	3	3	3	4	4	4	5	
6	신*빈	2	3	4	5	5	5	6		
7	김*현		2	3	4	4	5	5		
8	박*진		3	4	4					
9	오*지	2	3	3	3	4	4	5	6	6
12	우*완		4	4	5	5				
13	박*훈		3		4					
14	김*현	4	4	4	5	5	5	6	6	
15	권*원	2	2	3	4	5	5			
16	곽*얼		4	4						
18	이*협	3		4	4	4				
19	민*홍	4	3	3	4	4	5	6	5	6
20	손*환		3	3		3	4	5		
21	김*기				2	3				
22	박*우	1	1	1	2	3				
24	성*현	2	3	3	4	5	5	6	6	
25	안*민	3	3	3	4	4	5	6		

유창성 측정 및 TWE 쓰기 채점 기준표에 의한 채점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실제적 글쓰기의 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학습자가 성실히 참여한 경우에는 점차 더욱 완성된 글의 형태를 취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5명의 학습자 중 24명의 학습자가 1회 이상 참여를 했으며, 이 중 13명 즉, 52%의 학습자의 결과를 보면 영어 쓰기의 양상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명의 참여 학습자 중에서 모든 항목의 자료가

긍정적으로 증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학습자는 11명, 즉 44% 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이 11명의 학습자 중에서 영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한 번도 없는 학생이 2명이었던 점이다. 그리고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면서 영어 쓰기 능력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 쓰기 활동에 꾸준히 참여를 한 학습자의 경우, 유창성의 측면에서 영어 쓰기 활동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단어 수와 문장 수가 대부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TWE 쓰기 채점 기준표에 의해 영어 쓰기 활동을 평가한 결과도 참여를 지속적으로 한 학습자의 경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완성도가 높은 등급으로 영어 쓰기 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개별인터뷰와 상담에 의한 평가 결과 및 분석

연구자들은 개별 참여자들과 최소한 1회 이상의 구두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추후 필요한 경우 비디오 촬영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가 가능한 실제적 영어 쓰기 카페에 활발히 글을 작성하고 학습자간 상호작용의 모습을 보여 준 학습자는 64%에 달한다. 하지만, 다른 학습자의 글에 대한 조회 수 및 댓글 수를 확인해보면, 즉, 다른 학습자의 글을 읽고 공감하고 학급 카페의 주인으로서 참여를 한 학습자의 비율은 90%이상이었다. 학습자들이 4개월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떤 점을 느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개별 학습자 대상으로 인터뷰 및 상담을 실시하였다. 전사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학습자들의 실제적 영어 쓰기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은 다음과 같다.

1) 자신감

- 자연스럽게 영어로 글을 쓰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다.
 - 생각하거나 말할 때 영어로 그 내용을 생각해보려는 습관이 생겼다.
 - 한글로 머리에 떠올린 생각을 영어로 바꾸게 되는 과정(자동화 과정)을 통해 영어 표현 및 단어를 익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자동적으로 영어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 영어로 글을 쓸 때, 틀려도 되니까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 없이 편안하게 쓸 수 있어, 많이 쓰게 되었다.
 -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늘었다.
 - 영어 문법이 늘었다
 - 키보드를 칠 때, 영어 타자수가 늘었다.
-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기 위해, 모르는 단어를 사전 찾기를 통해 찾으면서 단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였다.

- 처음에는 한 시간 이상 걸리던 영어로 쓰기활동이 점차 5분도 채 안 걸렸다.

2) 흥미

- 다른 학생들이 쓴 글을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들어와 글을 쓰니 재미있었다.

3) 상호작용

- 다른 학생의 글을 읽고 나의 글을 써야 하므로, 카페를 통해 이야기(의사소통)를 나누고 있는 듯하였다.
- 친구들이 쓴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 위에 커서를 올려두면 단어의 뜻이 자동으로 마우스 포인터 위에 뜨는 기능이 있어서 친구의 글을 이해하기 쉬웠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인터뷰 결과, 학급 카페를 통한 실제적 영어 쓰기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참여하고 있었다. “재미있다.”, “자신감이 생겼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를 영어 사전을 찾아보게 됨에 따라 새로운 단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영어 타자수가 늘었다.” 등의 의견을 여러 학습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즉, 영어쓰기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으며, 글 읽기와 쓰기의 재료가 자신 혹은 급우의 이야기였으므로 재미있었다는 점, 그리고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것은 학습자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한글로 머리에 떠올린 생각을 영어로 바꾸게 되는 과정(자동화 과정)을 통해 영어 표현 및 단어를 익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자동적으로 영어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의견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쓰는 활동에 의미를 두고,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자동적으로 영어로 쓰게 되는 경향이 생겼다는 것으로, 쓰기 유창성과 관련 있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한국은 ESL 학습 상황보다 접근성과 의사소통적인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EFL 학습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영어를 습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상황은 생활 속 영어 사용 기회가 제한적이므로 영어를 창의적이며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자신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어를 익히고, 무엇보다 학습자들이 생활 속에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은 영어 공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많은 공교육 현장의 교사와 연구자가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급의 웹사이트를 영어로 개설하여, 영어 작문을 유도, 권장하였던 본 연구는 참여 학생 대부분으로부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참여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진행되는 학급 카페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했으며, 대다수의 학습자가 영어 작문을 자유롭게 쓰는 유창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개별 학습자마다 실험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순간의 영어 쓰기 능력 수준은 달랐지만, 4개월 동안의 실험 참여 후, 유창성 및 TWE 쓰기 평가 채점표에 의한 결과는 어휘의 수, 문장의 질적인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학급 카페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참여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간섭과 문법적 오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 한 것, 그리고 실제적인 소재에 대한 영어 쓰기 활동을 유도한 것 등이 성공의 직접적인 이유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온라인상의 작문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 교실이 아닌 공간에서 참여자들은 교실에서 느낄 수 있는 압박감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 쓰기 활동은 학습자의 측면에서 학습과 분리된 흥미로운 참여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학습자가 인터넷 학급 카페에 할애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노출 시간이 증가되었으며, 참여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더욱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학습자 상호간에 실제적인 그들의 언어로 글을 쓰고, 서로의 글을 읽는 과정에서 쓰기 활동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읽기 활동도 가능해졌다. 이는 각 글에 대한 조회 수를 살펴보면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같은 반 학습자의 글을 관심을 가지고 읽는 경향을 보였으며, 다른 학습자의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호기심에 그 단어를 찾아본다든지, 의미를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쓰기 활동과 더불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읽기 활동을 통해 영어의 읽기 능력도 향상된 것이다.

무엇보다 실제적인 영어 쓰기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카페 운영자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급 카페의 참여자들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 학습자와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등의 모습으로 카페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궁극적으로 학습자들간에 활발히 의사소통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므로, 교사가 점진적으로 카페 운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가 카페를 관찰하고 동시에 카페 활동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학습자들은 마음의 문을 닫거나, 무엇보다 카페 활동을 학업의 연장선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페에 쓰게 될 글의 장르와 관련 있는 메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학습자에게 의견을 묻고 어떤 주제로, 어떤 형식의 글을 쓰고 싶은지 등을 조사하여 정하는 것이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면서, 학습자들만의 공간으로서 학급 카페를 운영한다면, 학습자들은 지속적으로 실제적 영어 쓰기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 학습 카페를 실제적인 영어 사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면 학생들의 효과적인 영어 읽기 및 쓰기 활동을 통한 자연스러운 영어 습득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경석, 이경미. (2009). 보조교사 활용을 통한 초등영어 수준별 쓰기지도.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4(1), 89-125.
- 김영민, 배영직. (2007). 영어 일기쓰기에 나타난 초등학생의 어휘 활용 능력 분석. *현대영어영문학*, 51(4), 95-119.
- 김영철. (2002) 통합적인 초등영어 읽기, 쓰기 교수, 학습에 관한 연구.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7(2), 87-58.
- 김영태, 정금숙. (2003) 수준별 학습을 통한 초등학교 6학년 영어 읽기, 쓰기 통합지도.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8(1), 185-207.
- 김재혁. (1998). 초등 영어 쓰기 지도의 이론과 실제.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3(1), 165-187.
- 김정렬. (2001). *웹기반 영어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 김지영. (2004). *인터넷을 이용한 영어교육*. 서울: 민지사.
- 김혜리, 김소중. (2010). 문학텍스트 기반 반응저널쓰기를 통한 초등영어쓰기에 대한 연구.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5(1), 196-220.
- 박윤주, 찰스윤. (2009). *영어교수법*.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박의재, 정양수. (2003). *새로운 영어교수법*. 경기: 한신문화사.
- 박주희. (2010). *교사 피드백 유형이 중학생 영어 쓰기 정확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충청북도.

- 박현진, 고경석. (2008). Keypal을 통한 초등학교 영어 쓰기 지도.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3(1), 99-126.
- 선규수, 김윤주. (2009). 키팔 활동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문자 학습에 미치는 효과.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4(2), 303-323.
- 이병민. (2005). 초등학교 학부모의 사교육 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도.
- 이병민. (2008a). 대학생들의 구어 영어 노출 경험. *영어교육*, 63(4), 349-370.
- 이병민. (2008b). 특집: 한국 영어교육을 위한 진단과 제언 : 영어 공교육 개혁의 전망과 가능성. *안과밖(영미문학연구)*, 25(0), 10-45.
- 이선. (2008).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 적용한 장르중심적 쓰기 활동에 대한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50(4), 155-180.
- 임병빈. (2005). *영어교육 평가방법*, 서울: 경문사.
- 전은경. (2009). 저널 쓰기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 유형이 학습자의 쓰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충청북도.
- 정동빈, 강시경. (2008)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 초등 영어쓰기교수-학습효과. *언어연구*, 23(4), 577-599.
- 정미라. (2010). 동사 중심 문장 쓰기 활동이 영어 쓰기와 읽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충청북도.
- 최연희, 전은실. (2009). *영어쓰기 교육론: 원리와 적용*. 서울: 한국문화사.
- Brown, H. D. (2007). *Teaching by principles: An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3rd ed). White Plains, NY: Pearson Education.

예시언어 (Examples in): English

적용 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Elementary

이종은

안양남초등학교

431-08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275번지

Tel: (031)487-1665 / H.P.: 010-9102-9608

Email: j5ng2un@hanmail.net

박윤주

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10-791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

Tel: (02) 3668-4569/ H.P.: 010-6739-7011

Email: yjpark1115@hanmail.net

Received 13 December 2012

Revised 20 January 2013

Accepted 15 February 2013